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아동 돌봄 포럼

일가정 양립 지수, 아동돌봄 지수 등

2023. 5.9. 화 오후 2시
CTS컨벤션홀 11F

▪ 주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웅,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 본부장 감경철)

▪ 후원  CTS 기독교TV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CTS다음세대운동본부

▪ 문의 02. 6333. 2502 www.happybor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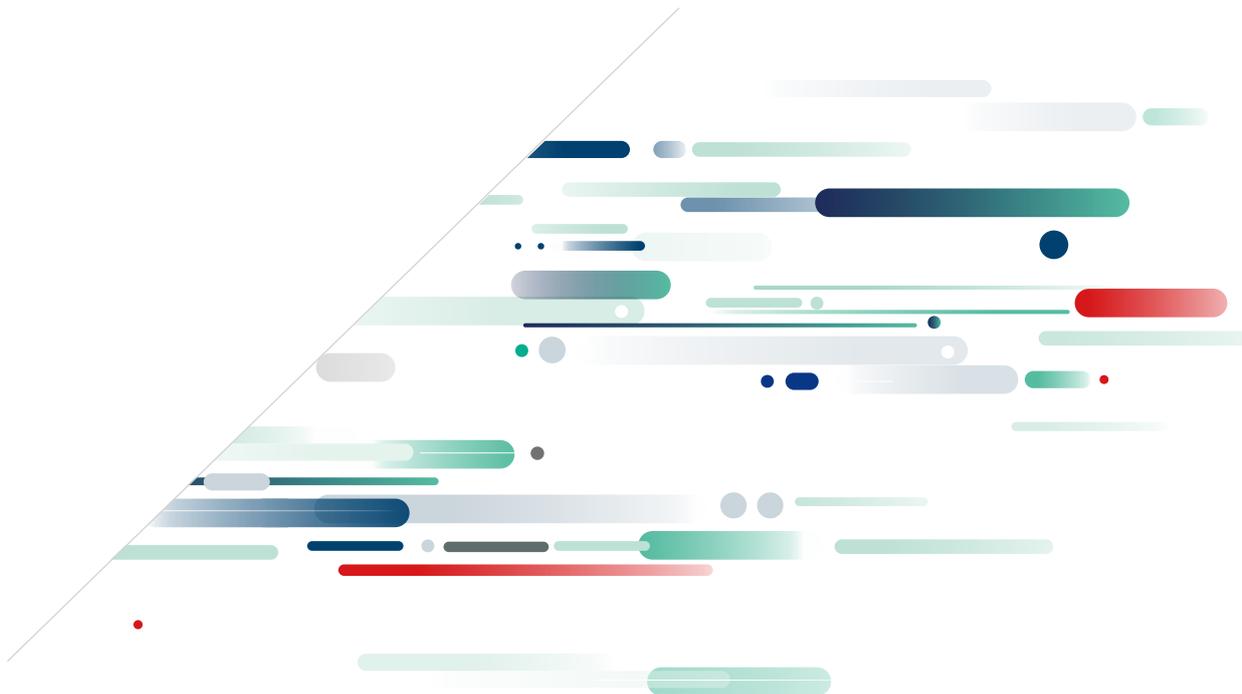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 돌봄 포럼

일·가정 양립 지수,
아동돌봄 지수 등

2023.5.9^{TUE}

14:00-17:00

CTS컨벤션홀 11F 노랑전로 100



본 자료집은 **저출생 대책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제안 포럼 행사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자료집의 내용은 발표자의 견해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 돌봄 포럼

일·가정 양립 지수,
아동돌봄 지수 등

프로그램

<p>개회식 14:00~14:20</p>	<p>개 회 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회장)</p>
<p>주제발표 14:20~14:50</p>	<p>축 사 이성화 목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의 본부장)</p>
<p>토론 ① 14:50~15:00</p>	<p>격 려 사 김태영 총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한교총 前 대표, 백양로교회 담임)</p>
<p>토론 ② 15:00~15:10</p>	<p>사 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p>
<p>종합토론 15:10~15:20</p>	<p>주 제 발 표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최진호 교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p>
	<p>토 론 ①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토론 이인실 원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前 통계청장)</p>
	<p>토 론 ②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토론문 최바울 실장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p>
	<p>총 합 토 론</p>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 돌봄 포럼

일·가정 양립 지수,
아동돌봄 지수 등

목차

1부	개 회 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회장)	• 11
	축 사	이성화 목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 13
	격 려 사	김태영 총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한교총 前 대표, 백양로교회 담임)	• 15
2부		사 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제발표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최진호 교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19
	토 론 ①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토론 이인실 원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前 통계청장)	• 37
	토 론 ②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토론문 최비울 실장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 41
	종합토론		

1부 개회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축사

이성화 목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격려사

김태영 총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한교총 前 대표, 백양로교회 담임)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회장)

안녕하십니까. CTS 기독교TV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감경철 장로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돌봄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바로 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년 12개월 중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달을 여러가지 가족과 관련된 행사로 기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현대 젊은이들은 그와 같은 가족의 가치를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 같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사건들도 뒤편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나의 자아 성취나 일상적인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가치전도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소소한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 없는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외롭고 공허한 백일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저출생 현상은 가치관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는 하나의 병리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책과 캠페인,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보완점은 무엇인지 힘을 다해 들여다보고 서로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가 부디 현 정책을 또렷이 비춰내는 거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출생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말로 저출생을 극복해내는 정책을 창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어려운 발표를 맡아주신 아주대 최진호 교수님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님 그리고 통계청 최바울 실장님께 더욱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 돌봄 포럼’의 개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이성화 목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의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화 목사입니다.

싱그러운 5월을 맞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돌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교회들이 이를 크게 축하드리며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두는 포럼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또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동총재로 있으신 장종현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 그리고 조국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신 감경철 본부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은 다음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믿음 아래 다음세대 부흥에 매진하고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둘러보면 교회학교가 너무나도 침체된 나머지 아예 어린이 중·고등부 예배가 사라지고 통폐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역시 저출생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질 않으니 교회학교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가 사라지니 다음세대가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몇 십년 후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면 한국교회에는 나이 들고 생업에서 은퇴한 신도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학교들 또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국가 경제가 침체될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군인들조차 부족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암울한 미래상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들의 출생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올해 들어 세번째로 개최하는 포럼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포럼을 통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현 정부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그 정책의 보완을 위한 제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진단의 결과를 정책제안서로 작성하여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사실상 저출생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귀한 투쟁을 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충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 돌봄 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김태영 총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한교총 前 대표, 백양로교회 담임)

안녕하십니까. 김태영 목사입니다.

일년중 가장 아름다운 달로 손꼽히는 5월을 맞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제안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는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공을 들여 이번 포럼을 준비하여 주신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진호 교수님, 이인실 원장님, 최바울 실장님. 각기 학계와 민간, 정부기관의 영역에서 통계 지표를 무기로 우리 사회를 예리하게 분석해 오셨던 전문가 분들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좋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평가하기 적합한 지표를 제안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생률 0.78명의 수치를 많은 분들이 심각하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단지 숫자일 뿐인데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옥죄는 느낌을 주었을까요. 그 수치에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0.78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는 아이를 낳기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의 심정과 텅빈 학교와 놀이터의 풍경, 지방 소멸의 위기와 국가경제의 부담 등 수많은 것들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숫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또다른 수치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숫자를 변화시킬 유효한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의 정책적 방향은 옳은 것인지, 보완하고 고칠 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지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지금의 돌봄 인프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 일과 가정의 균형은 적절한지,
나아가 과연 우리 사회는 부부가 아이를 출생하는 일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여기고 눈치를 주는 사회인지가 이 지표를 통하여 명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여 세상을 읽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지는 합계출산율을 성적표로 받아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오늘의 토론을 눈여겨 보며 방법을 찾아나갑시다.
이것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돌봄 인프라에 부족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충해나갈 것인지, 일과 가정의 균형이 맞지 않다면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방법은 무엇인지, 출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미성숙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일깨울 것인지
정부 시책의 보완점은 물론 각 개인이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출생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빛나는 내일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제안 포럼’의 모든 토론자님들을
다시 한번 응원드리며 저의 격려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부 포럼

[주제발표]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1. 돌봄 : 전체적 돌봄 인프라 만족도
2. 일/가정 균형 : 근로시간, 유연근무 가능 및 만족도
3. 출산친화 사회적 환경 : 사회보험 가입율,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내 태도, 여성 경력 단절 등
4. 양성 평등 : 가정에서의 육아부담, 남성 육아 휴직 비율 등

최진호 박사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토론]

이인실 원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前 통계청장)

[토론]

최바울 실장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제발표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1. **돌봄** : 전체적 돌봄 인프라 만족도
2. **일/가정 균형** : 근로시간, 유연근무 가능 및 만족도
3. **출산친화 사회적 환경** : 사회보험 가입율,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내 태도, 여성 경력 단절 등
4. **양성 평등** : 가정에서의 육아부담, 남성 육아 휴직 비율 등



최진호 교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전)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대학원장
- 전) 한국인구학회 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 브라운대학 사회학 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2023. 5. 9.

최진호(아주대 명예교수)



1. 지표 설정 필요성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통한 저출생 정책은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지적될 수 있으나 정책 평가의 부재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

1. 지표 설정 필요성

-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매년 정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 평가는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였음.
- 실제 정책 수단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가는 미약하였음.
- 따라서 이제는 정책 수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지표화 할 필요 있음.

3

2. 주요지표와측정

- 그동안 한국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남성은 일자리 등 경제적 이유,
여성은 일과 육아의 부담 등 돌봄 문제를 지적.
- 이 중에서 일자리 등 경제적 이유는 해결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돌봄,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등 관련 지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4

2-1. 일-가정양립: 돌봄

- 현재 한국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제도로는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

1) 출산 전후휴가

- 2020년 고용보험의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4.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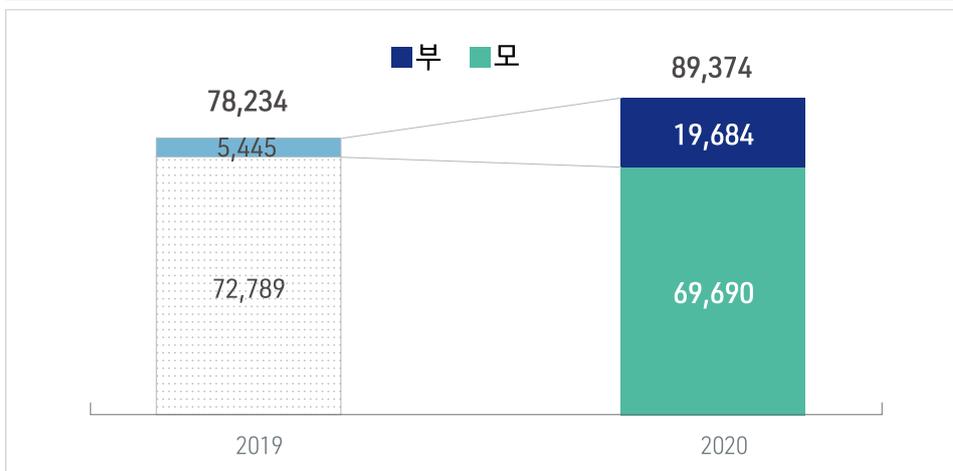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는

전년보다 261.5% 증가.

5

2-1. 일-가정양립: 돌봄

<지표 1.> 출산전후휴가자수



6

2-1. 일-가정양립: 돌봄

2) 육아휴직

-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총 취업자는 **2,674만 명**,

이중 임금근로자는 **1,988만 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1,651만 명**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는 1,28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7.9%**, 전체 임금근로자의 **64.5%만이 고용보험에 가입**. (김은정, 보사연 연구 보고서에서 재인용)

7

2-1. 일-가정양립: 돌봄

<지표 1-1.>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7.08)

(단위: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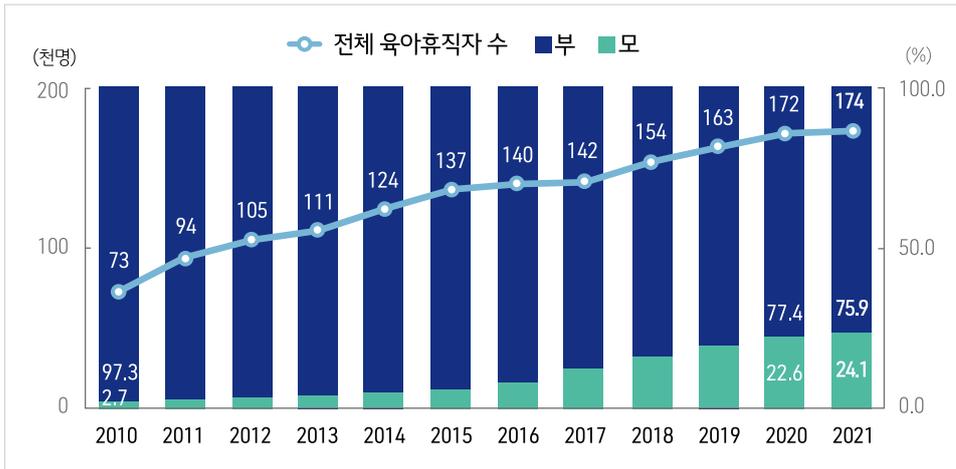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 4,379만 명						
경제활동인구: 2,774만 명						
비경제 활동 인구 (1,605 만 명)	실 업 자 (100 만 명)	취업자 2,674만 명(100%)				
		임금근로자 1,988만 명(74.3%)				
		적용대상(1,651만 명, 83%)				
		비임금 근로자 ¹⁾ (686만 명, 25.7%)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 ²⁾ (337만 명, 17.0%)	실제 가입자 (1,282만 명, 77.6%)	미가입자 (369만 명, 22.4%)
		공식적으로 제외	사각지대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자	실제 사각지대

주: 1)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적용제외자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포함됨
 자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017.1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2017.11.3).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재구성: 박선권(2018).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p.15. <표 2>. 재인용.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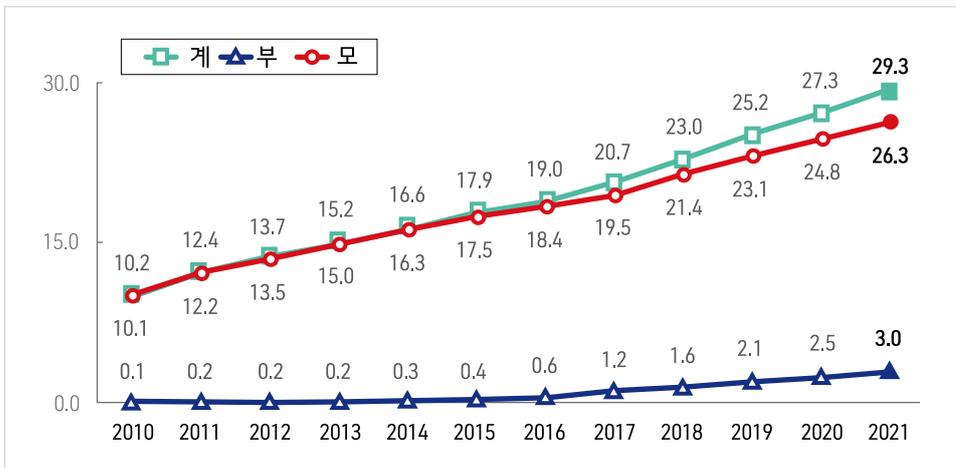
2-1. 일-가정양립: 돌봄

<지표 1-2.> 전체 육아휴직자 수(천명)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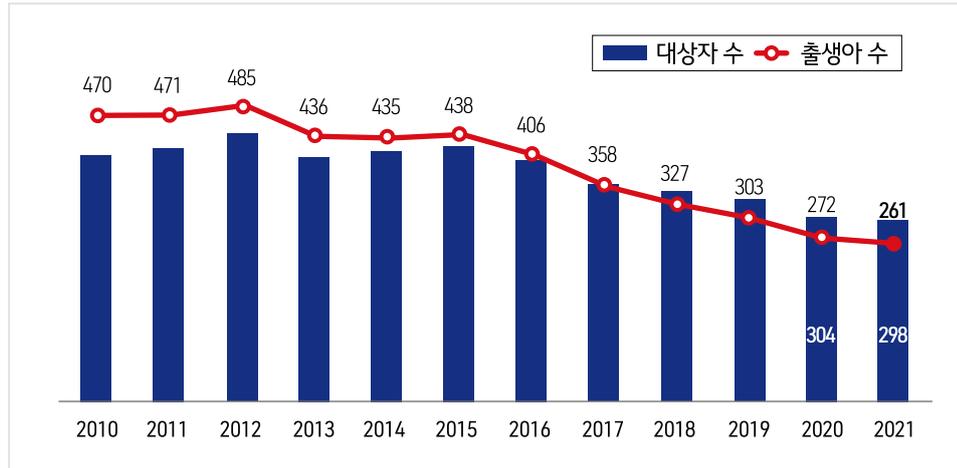
2-1. 일-가정양립: 돌봄

<지표 2.>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2-1. 일-가정양립: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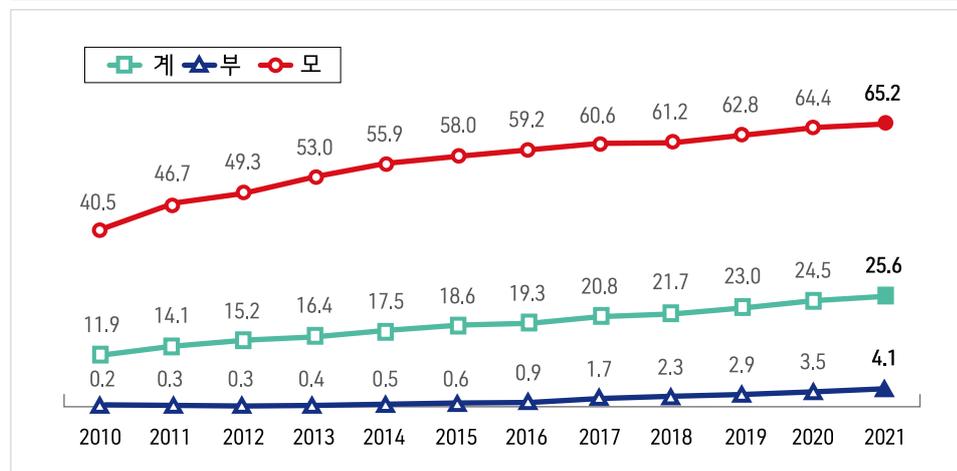
<지표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및 출생아 수(천명)



11

2-1. 일-가정양립: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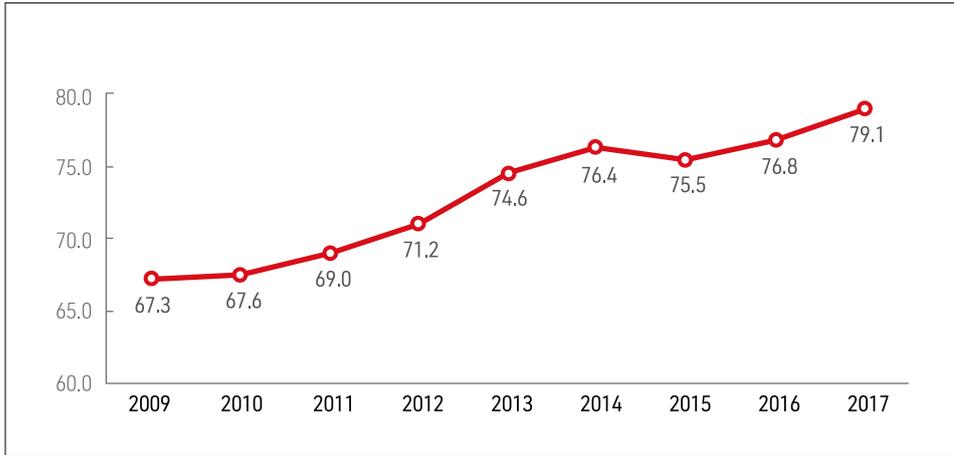
<지표 3.>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2

2-1. 일-가정양립: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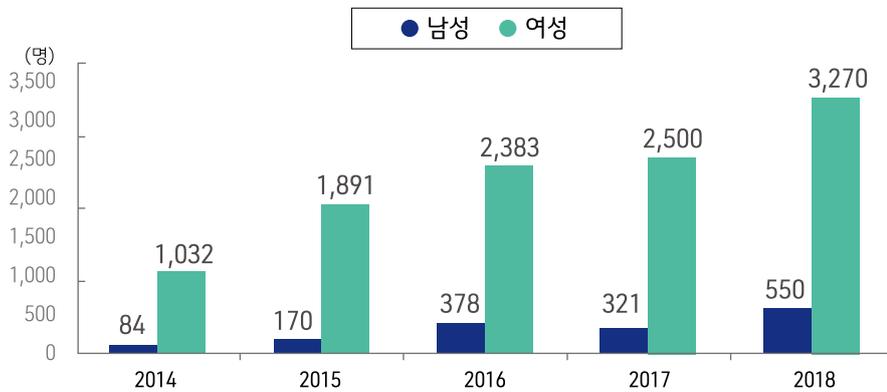
<지표 4.> 육아휴직자의 고용 유지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DB」

2-1. 일-가정양립: 돌봄

<지표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DB」

2-2.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 2019년 현재 15~54세 기혼여성 884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70만 명으로 19.2%를 차지함.
-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50.5%**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
- 연령별로는 30대가 70.1%**로 가장 높고,
 15~29세 56.6%, 40대는 47.0%임.

2-2.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지표 6.> 경력 단절 여성 비율³⁾

(단위 : 천명, %)

	15~54세 기혼여성(A)		비취업여성 ¹⁾ (B)			경력단절여성 ²⁾ (C)			
	구성비		구성비	비중(B/A)	구성비	비중(C/A)	비중(C/B)		
2016	9,376	-	3,727	-	39.7	1,924	-	20.5	51.6
2017	9,159	-	3,574	-	39.0	1,831	-	20.0	51.2
2018	9,005	-	3,457	-	38.4	1,847	-	20.5	53.4
2019	8,844	100.0	3,366	100	38.1	1,699	100.0	19.2	50.5
15~29세	419	4.7	209	6.2	49.7	118	6.9	28.1	56.6
30~39세	2,601	29.4	1,149	34.1	44.2	806	47.4	31.0	70.1
40~49세	3,776	42.7	1,349	40.1	35.7	634	37.3	16.8	47.0
50~54세	2,048	23.2	659	19.6	32.2	142	8.3	6.9	21.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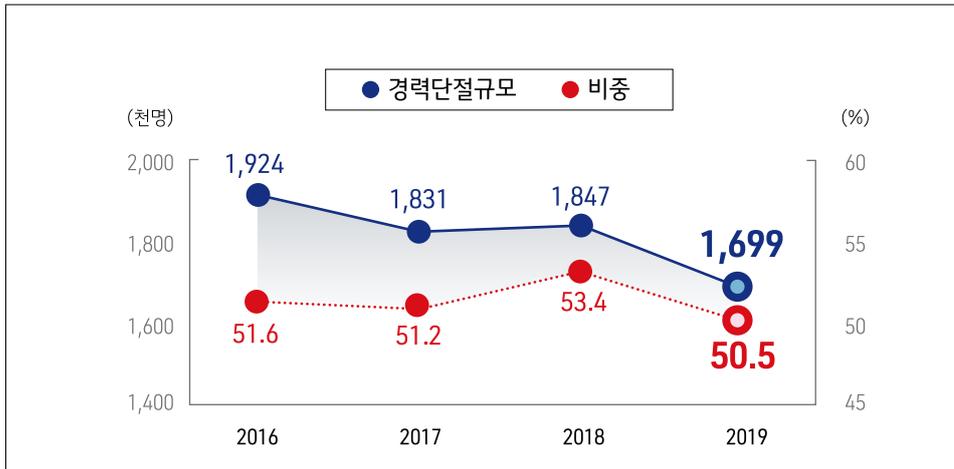
주 : 1) 비취업여성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2)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3) '18년 자료부터 등록센서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으며 '11년-'17년 자료 소급 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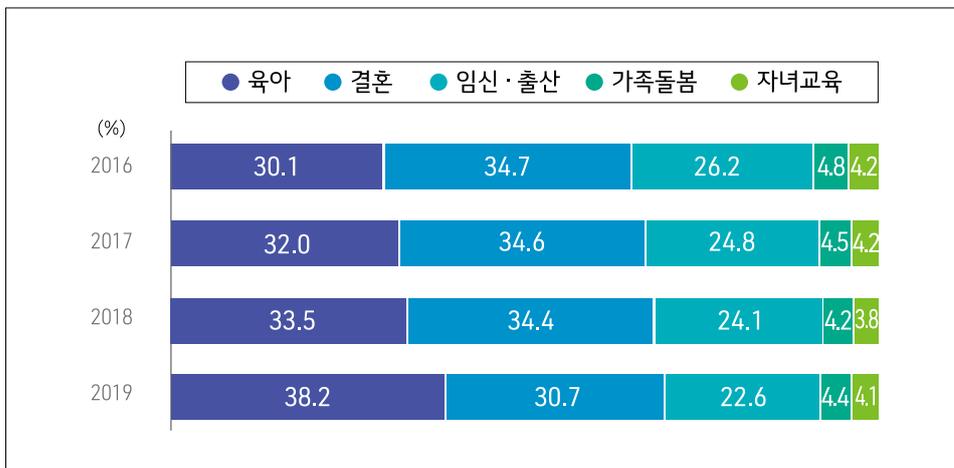
2-2.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지표 7.>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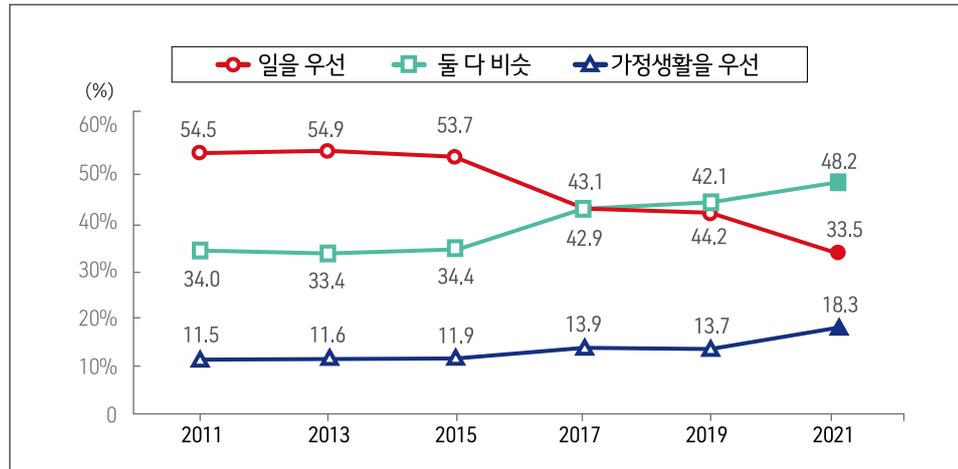
2-2.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지표 8.> 비취업 여성 중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



2-2.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지표9.>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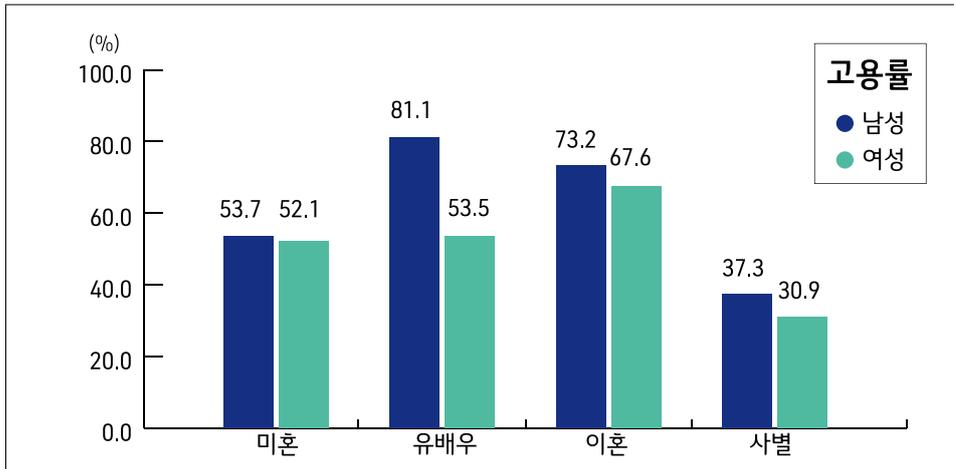
2-3.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 일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성별에 따른 고용률과 일하는 시간의 차이를 선택.**
- 2018년 현재 고용률은 남자가 70.8%로 여자의 50.9%보다 **19.9%** 높으나, 그 차이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
-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그 차이가 1.6%이나 **유배우 경우는 27.6%까지 확대.**

20

2-3.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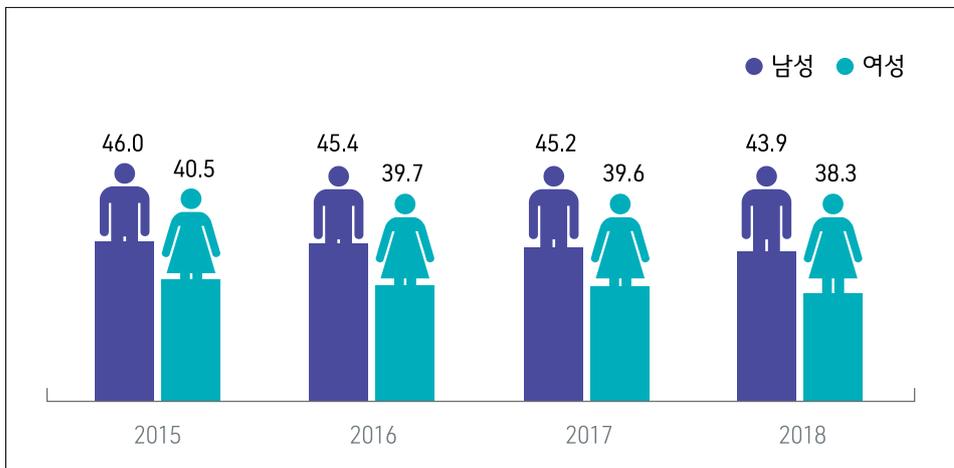
<지표 10.> 유배우 남녀의 고용률 격차



21

2-3.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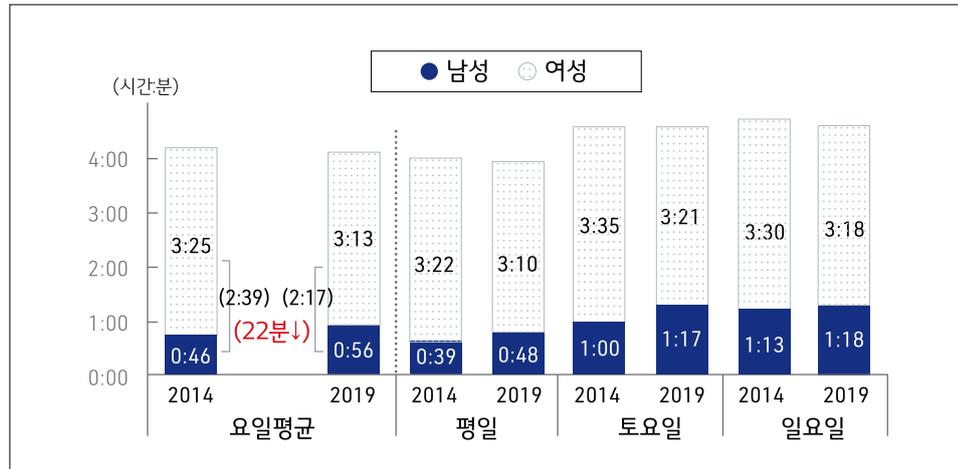
<지표 11.> 주당 평균 근로시간(시간)



22

2-3.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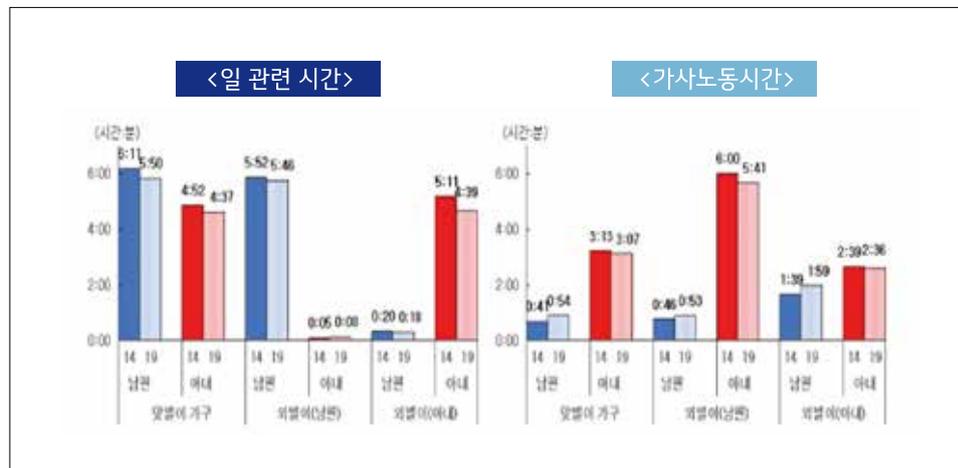
<지표 11-1.> 성별 가사노동시간 격차



23

2-3.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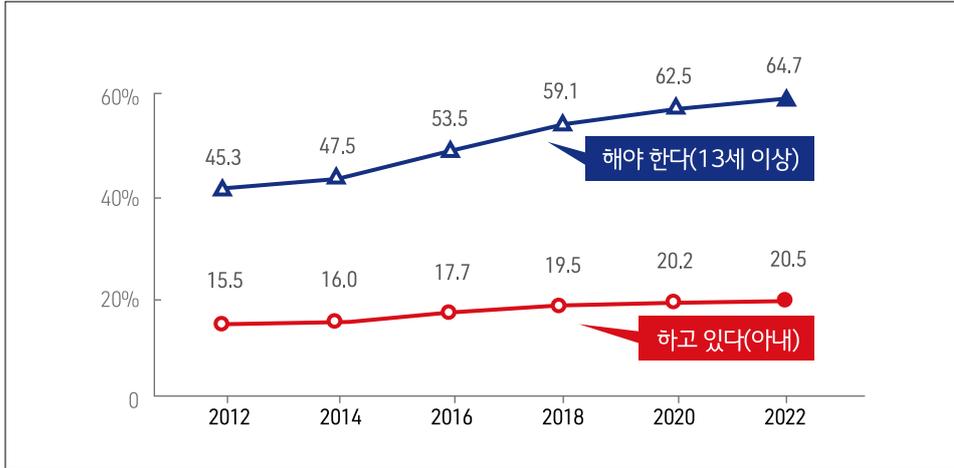
<지표 11-2.>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의 시간사용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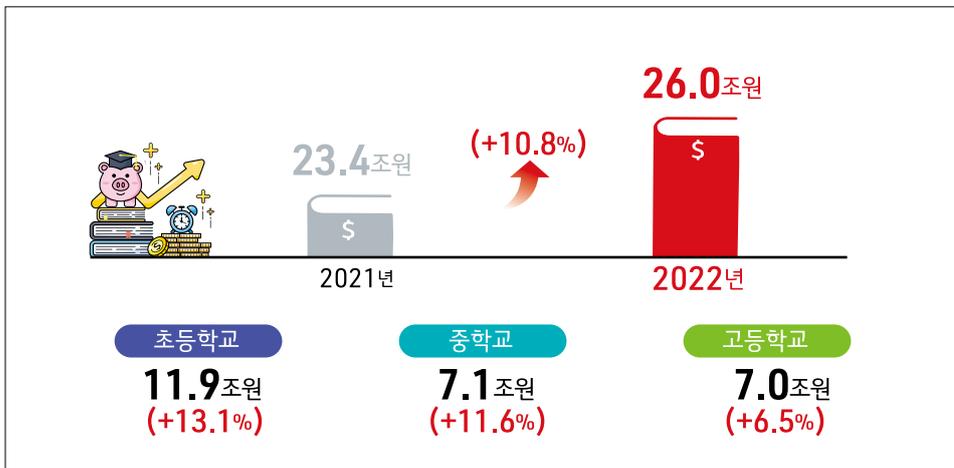
2-3.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지표 12.>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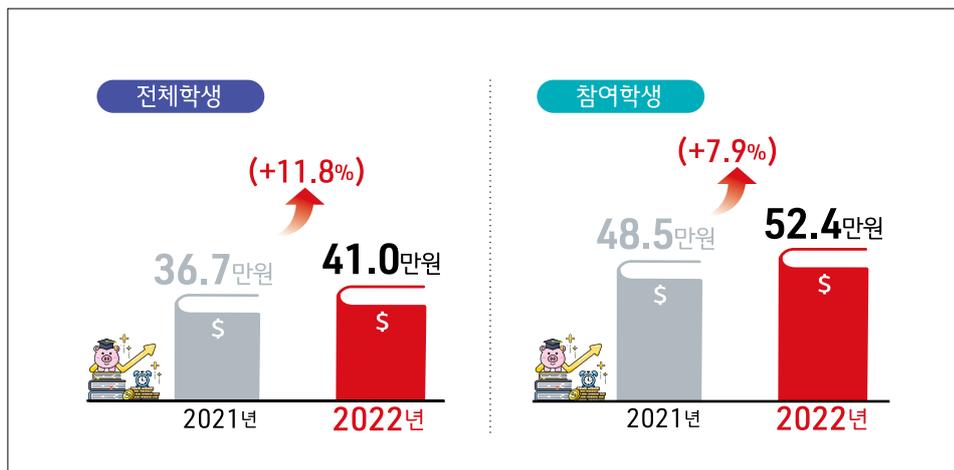
2-4. 자녀 양육 비용: 사교육비 추이

<지표 13.> 사교육비 총액



2-4. 자녀 양육 비용: 사교육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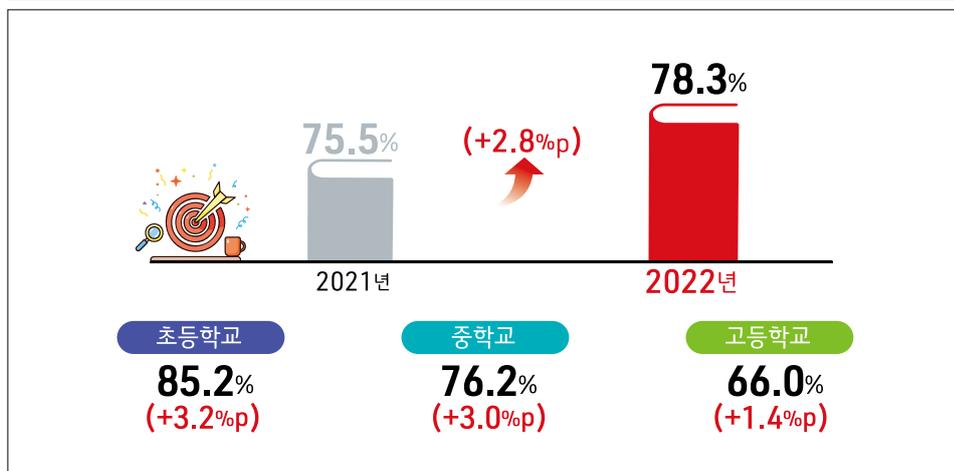
<지표 13-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7

2-4. 자녀 양육 비용: 사교육비 추이

<지표 13-2.> 사교육 참여율



28

3. 장래 보완 지표

- 앞에서 본 것처럼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등 기존의 행정통계나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표는 이미 상당수 존재함.
- 그러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지표는 보건 사회 연구원이나 육아정책 연구소 등에서 행한 표본조사 결과가 있으나 표본 수가 적어 정책에 반영하기는 미흡함.

3. 장래 보완 지표

- 예컨대 2021년에 수행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의 표본 가구는 1,933가구, 초등 1학년 이하 아동 수는 2,832명으로 자녀의 연령, 거주지, 가구소득 등 특성별로 세분하여 분석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계청의 특별 조사도 검토할 필요 있음.

3. 장래 보완 지표

- 또한 일-가정 양립의 주요한 제도인 출산휴가, 육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반 근로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필요함.
-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31

3. 장래 보완 지표

- 이 발표에서는 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지표를 예시하였으나 이외에도 사교육비 추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저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지표화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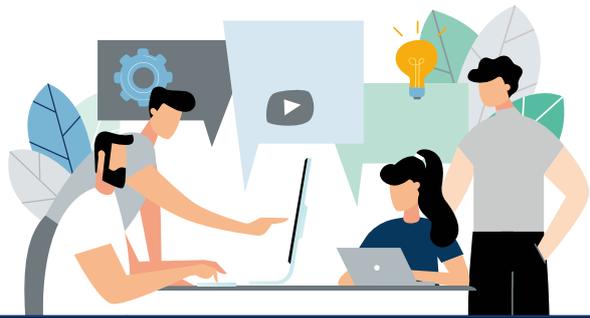
32

3. 장래 보완 지표

- 마침 지난 4월 19일 통계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성 및 활용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가 기대됨.
- 현재 통계청의 일정은 통계지표 구성('23년), 정합성 점검('24년), 지표체계 마련('25년) 임.
- 이처럼 저출산 관련 지표체계가 구축, 활용될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임.

토론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이인실 원장

한반도미래연구원, 前 통계청장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EMO



MEMO



토론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토론문



최바울 실장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 現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복지연구부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토론회

(최바울 통계개발원 2023. 5. 9.)

□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

- 본 발표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지표화해 정책 수단의 효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기존 저출생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양적 목표를 지향했으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최근(2023. 3.28)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수 있는 사회 조성”으로 수정
 - 다자녀 출산 유도, 난임치료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을 제고, 출산/육아휴직,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일자리 등 약 332조원(2006~2022)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지속 감소(2012년 1.3명→2022년 0.78명)
- 그렇다면, 기존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었는지 통계 데이터/지표에 근거해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별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가 필요(예산 투입이 많은 정책 중심으로)
- 정책의 한계(예산 상한선, 소득 기준, 사각지대)를 파악해 보완해 나갈 필요
- 기존의 조사통계는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나,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가구통계등록부 + 고용보험DB + 사회보장DB 등)를 연계한 분석이 필요

○ 통계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MOU 체결(2023. 4)을 통해, 저출산 관련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

- 저출산 실태와 원인, 대응을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및 평가를 지원

□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제안

○ 돌봄,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양성평등, 자녀 양육 비용(사교육비) 지표들을 제안하였으며, 보육서비스 만족도 등의 지표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

- 저출산의 원인을 중심으로 지표들을 제안하였는데, 원인을 보다 구체적(타겟집단)으로 파악해 제시하고, 저출산의 실태와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된 지표들을 추가할 필요

○저출산 실태 관련 지표

- 기존의 합계출산율(기혼과 미혼이 모두 포함)과 더불어 유배우 출산율, 주출산 연령대(35~39세)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수, 학력별/소득수준별 출산율, 지역별 출산율, 결혼-출산(첫째, 둘째 등) 이행기간, 주출산 여성인구 추이 등과 같은 세분화된 지표 필요
- 비혼(자발/비자발), 만혼(초혼/초산연령), 무자녀(딩크족) 등의 변화를 성/연령/지역/학력별로 분석할 필요(결혼을 안해서인지, 결혼을 늦게 해서인지,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저출산 원인 관련 지표

-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노동시장, 주거, 일·가정 양립, 돌봄, 양육비용, 청년층 인식(결혼/출산, 맞벌이, 돌봄 등) 등으로 구분해 지표들을 제시할 필요

※ 저출산 5대 요인(저고위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으로,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을 제시

- 상대적으로 저혼인, 저출산 비율이 높은 집단(저소득층, 저학력 남성, 수도권 청년, 고학력 여성 등), 출산/육아휴직률(특히 0~2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등 지원정책의 활용이 낮은 집단(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을 지표로 확인해 정책과 연계

-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임금격차, 승진차별과 출산 불이익)과 근로시간 감소(주 69시간 논란), 여성 경력단절 방지(M자 곡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활성화(스웨덴 법적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상한 1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유연근무, 공무원 육아시간제도) 지표 보완
- 돌봄 공백(관련 부처간 조율, 늘봄학교의 실효성,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특히 아동의 돌봄실태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보육실태조사의 확대), 가정에서 가사노동시간,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세부적 지표 마련
- 양육비용(아동수당 연령 확대(17세), 대학 등) 및 교육경쟁 심화(사교육 급증, 아동의 행복)에 대한 실태(특히 양극화)를 보다 구체적인 지표(소득수준별, 지역별 등)로 제시할 필요
-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적 차이(청년의 지역 이동)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필요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지표
- 정책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론/실증, 해외사례 등)
- 정책 대상(모든 청년, 모든 세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방향)를 설정할 필요
- 결혼·출산 선택의 양극화가 양육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설계
- 보편적 지원(아동수당, 난임지원 등)과 선별적 지원 정책(주거지원,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

- 고용, 주거, 사교육,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사회구조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참고자료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안) >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제안 아동 돌봄 포럼

일·가정 양립 지수, 아동돌봄 지수 등

발행일 2023년 5월 9일
발행인 감경철
발행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_ 02.6333.2502 www.happyborn.kr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EL _ 02.2278.9260

© 2023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아동 돌봄 포럼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책자의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원고는 저자들의 개인의견을 서술한 것이므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